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3. 단기선교

동연이 호연이가 이번 여름에도 멕시코로 단기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7/19/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01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7월 26일 (666호)

전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다함께
	갈라디아서 5:1-6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유형선
	종과 자유인의 명예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8/2/26	8/9/26
최성호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두 여인

성경에서 두 여인이라는 관점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예 언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이 두 후손들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뱀의 후손이며, 뱀의 후손이 어떻게 여인의 후손을 죽이고 핍박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가인은 얻었다, 내가 했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숨, 허무, 나는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뱀의 후손은 '내가 하나님이다'를 자랑하는 자들이요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 라멕,네페림,함,가나안,블레셋,아말렉,바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를 확장해 가며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여인의 후손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반면에 여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늘 약한 자로 핍박 받는 자로, 죽고 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두 여인의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고 증언하면서 이스마엘이 뱀의 후손이요, 이삭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태어난 뱀의 후손 이스마엘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교회 밖에 있는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의 산물인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 권위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마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량이 불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다.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